

수시 QnA 모음...1탄

Q. 세특의 깊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영어 논문들도 참고하였는가? 면접 질문이 걱정된다...

A. 세특은 그냥 무턱대고 쓰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찾아 보면 계속해서 모르는 내용들이 추가로 튀어나온다. 그 부분들을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고, 또 깊어진다.

영어 문헌이나, 영문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였다. 영어 문헌을 포함, 전문 자료에 관련된 질문들은 어떤 내용을 참조하였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중점이므로 너무 전체 내용을 장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Q. 세특을 위한 보고서, 실험주제 등을 정할 때 아이디어나 소스는 어떻게 얻었는가?

A. 주로 공부하거나 탐구하다 궁금증/호기심이 생기는 것들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골라 탐구했다. 잘 모를 때는 과학 뉴스나, 유튜브의 과학 채널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궁금증이 깊어지면 책도 사서 읽어 보는 것이고.

Q. 세특 내용 간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A. 세특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 큰 맥락 없이 주제가 자주 바뀌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빠져버려 아쉬울 수밖에 없다. 너무 하나만의 고리일 필요는 없으나, 크게 여러 고리들을 정해두고 전 교과목의 세특에서 그 부분들을 이어 나가는 것이 교과 간의 동기, 연결성의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공동교육과정도 섞어 주는 것이 좋다.

Q. 교과 간 연관성은 어떻게 챙기나?

A. 예를 들자면, 국어 시간에 ~~에 대한 토론을 했다. 거기서 ~~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고 싶어 ~~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교과 간에 연결을 만들 수 있다.

특히나, 교과 세특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정말 중요하다. 동기가 없는 탐구활동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

Q. 세특에서 본인 활동의 주체성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A. 스스로 의문을 가진 과정-탐구를 진행해나간 과정-그 결과로 이끌어낸 보고서/발표-추가로 궁금증을 가져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이후 다른 과목과도 연계하는 모습

으로 세특을 구성한다면 활동의 주체성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다.

Q. 동아리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

A.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동아리로 가는 게 최고다. 주제를 정하는 측면은 다른 친구들과의 관심사를 통합하여 융합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좋다.

Q. 진로 관련 발표...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1학년 때부터 암으로 주제를 잡고 준비하셨나요?

A. 진로 관련 발표 주제 같은 경우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도 물론 있겠지만, 정 떠오르는 주제가 없다면 그냥 과학이나 의학 뉴스들 훑어지게 보다 보면 분명히 연결시킬 만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고민하면 이미 머릿속에 주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봤다가보다는,

1학년 때는 암, 유전자, 중증외상외과 등 다양한 의료 연관 분야들을 폭넓게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도 관심이 가서 2학년때부터 자세히 보게 된 내용이 암이었구요. 여러 방면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본인에게 맞는 내용이 튀어나올 거예요!

Q. 활동의 개수가 적어서 걱정입니다...

A. 활동이 깊이가 있는 것이었기에 개수가 적은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다.